

안산 성태산성의 조사 성과와 성격 고찰

이정철(제1저자)* · 황보경(교신저자)**

국문초록

성태산성은 2000년에 처음 발견된 둘레 382m의 산봉형 산성으로 三國時代 安山 일대 관방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시굴조사를 통해서 성벽의 축조 상태를 알 수 있었고, 토기와 기와도 출토되어 축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태산성의 축성 시기는 6세기 말~7세기 전반으로 판단되는데, 둘레와 축조기법은 양천고성지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자미산성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산성의 축성 목적은 553년 新州 설치 이후 西海岸을 통한 입출항과 육상 교통로를 감제 및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과 화성 사이에 위치한 안산 해안은 최전선을 지원하고, 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내륙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라는 564년부터 중국과 외교를 하기 위해 항구의 설치와 당성 1차성을 축성하면서 그 주위에 방위성을 쌓아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강 본류역과 인천, 김포, 안산 지역에도 소규모의 산성을 축성하여 한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갔다. 특히 기존의 대중국 외교 질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해 왔던 반면, 6세기 중~후반 사이에는 신라도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개시하면서 서해의 制海權 확보는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이에 신라는 경기 남부지역과 경기만 일대 해안에 많은 성곽을 축성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그중에서도 안산 일원이 당성과 호암산성을 잇는 간선도로의 중간지점에 해당되어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 사이에 성태산성의 축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성태산성은 신라의 대중국 외교활동과 관련되어 축성되었고, 안산 해안과 광명, 수원 일원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감제 및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해를 통한 신라의 대중국 외교행보는 고구려와 백제에게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삼국은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기만 일대에서의 감시와 충돌이 발생되었다. 이에 신라는 해안과 인접한 내륙에도 중소규모의 성곽을 축성하여 경기·남양만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산 해안과 육로를 방어하는 관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태산성을 비롯한 성곡동성과 군자산성 등을 거의 동시에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안산, 신라, 성태산성, 대중국 외교, 서해, 제해권

*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부교수 / paleoarch@hanmail.net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주임 / hbkan@daum.net

| 목 차 |

I. 머리말	IV. 성태산성의 성격
II. 조사 현황과 성과	V. 맺음말
III. 축성 기법과 유물 검토	

I. 머리말

安山城(山城)은 2000년에 발견된 소규모의 산봉형 산성으로 성태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다. 성에 대한 조사는 지표조사와 현황조사를 거쳐 2021년에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현황조사시에는 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둘레가 382m, 내부면적 9,340㎡, 성벽의 평균 높이 5m 이내(최대 6m 내외), 폭은 4.5m 정도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굴조사는 성의 동벽 구간에 대하여 진행되어 부분적으로나마 축성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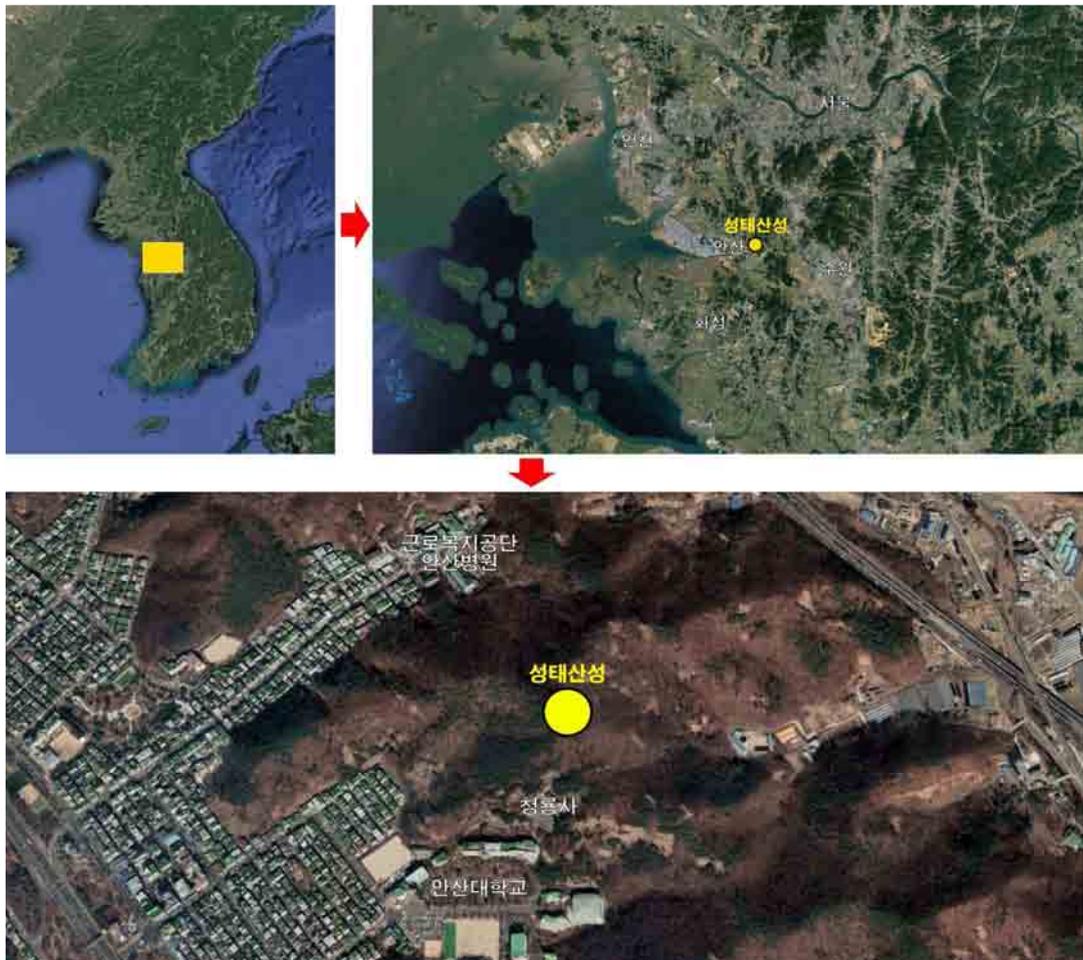
이 산성은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위의 터미산성과 군자산성, 성곡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성이 축성되는 시기는 삼국이 한강과 서해의 제해권을 두고 치열하게角逐을 벌이기 시작하던 때이다. 551년 나제는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는 한강 유역과 충북 및 강원도 일대로 북진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로 16개 군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553년 신라는 백제가 회복한 한강 유역을 기습적으로 점령하였고, 新州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실효지배에 나섰다. 신주의 위치는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로 지목되며, 하남 이성산성이 치소지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한강 유역의 거점지역에는 많은 성곽이 축성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차산성과 양친고성지, 불암산성, 호암산성 그리고 고양 행주산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축성 양상과 시기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또한 서해안의 당성과 문학산성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어 삼국시대 서해안의 관방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 성태산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축성기법과 출토 유물을 통해 그 주체와 시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에 필자들은 성태산성의 조사현황과 성과를 바탕으로 축성기법과 유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이 글을 준비하였다. 비록 조사의 범위가 좁고 유구나 유물을 해석함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서울과 인천, 화성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성과와 맞물려 성태산성도 상호 관련성이 看取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신라의 서해안 방어체계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조사 현황과 성과

안산 성태산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24-53번지와 산23-12번지, 팔곡일동 산8-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성곽은 修理山(해발 489m)에서 나봉산으로 이어지는 남쪽 산줄기가 서쪽으로 뺏어내린 해발 160.7m의 성태산 정상부에 자리잡고 있다. 성곽의 남쪽으로 약 210m 및 340m 거리에 각각 청룡사와 안산대학교, 북쪽으로 약 320m 이격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위치한다(그림 1).

1. 조사 현황



〈그림 1〉 안산 성태산성 위치도(구글지도에서 편집)

성태산성은 안산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前 안산문화원 원장 유천형에 의해 2000년 발견되었으며, 이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¹⁾ 그 결과, 성태산성은 성태산 정상부를 에워싼 전형적인 산봉형[테피식] 산성으로 확인되었다. 성의 평면형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이며, 둘레 약 372m, 내부 면적 약 8,400㎡, 성벽 높이는 6.5m 이상에 폭은 4.5m 정도이며, 성의 축성은 산비탈을 ‘L’자형으로 깎아낸 뒤 성벽을 쌓고 뒤채움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축조된 內托式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습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에 축성되어 南北朝時代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안가의 중요 지점과 주요 교통로상에 전략적으로 쌓은 성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2019년 시의회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태산성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안산시 관내의 삼국시대 유적으로 그 稀少性이 주목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성태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현황조사가 실시되었다.²⁾ 현황조사는 최초 지표조사 이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조사와 측량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성곽의 형태와 축성 방식,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최초 지표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측량조사에서 성의 둘레는 382m, 성 내부면적은 9,340㎡, 성벽의 평균 높이는 5m 이내(최대 6m 내외), 성의 폭은 4.5m 정도로 파악되어 기존의 지표조사 내용이 보정되었다. 한편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성곽 구간과 달리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한 평탄지의 경우 체육시설물 등에 의하여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황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유적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발굴조사가 가능한 필지 일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2021년 가을 발굴(시굴)조사가 성곽의 동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³⁾

발굴(시굴)조사는 성태산성 중앙의 산정상부에서 동-남동 사면에 해당되는 성곽 구간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전 성벽의 일부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성벽의 흐름과 수직이 되도록 두 개의 트랜치(Tr. 1과 2)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태산성의 축성 방식과 구조의 파악, 유물을 통한 시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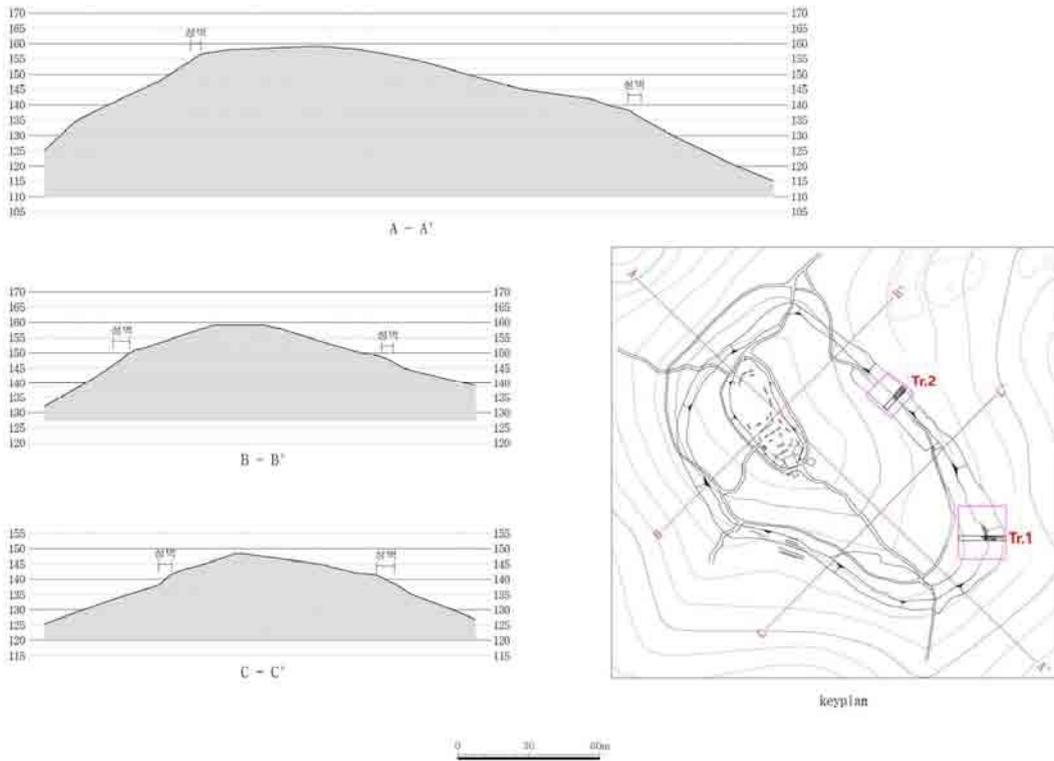
2. 입지와 성곽의 축조방식 및 구조

성태산성의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멀리 서해 바다가 한눈에 조망되고 동쪽으로는 수원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들이 관망된다. 남쪽으로는 야산과 멀리 해안이 이어진다. 그리고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터미산성이 자리잡고 있다.⁴⁾

1) 배기동·이한용·강병학, 『안산 성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0.

2) 안신원·이정철·류대협, 『城台山城-현황조사 보고서-』,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19.

3)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안산 성태산성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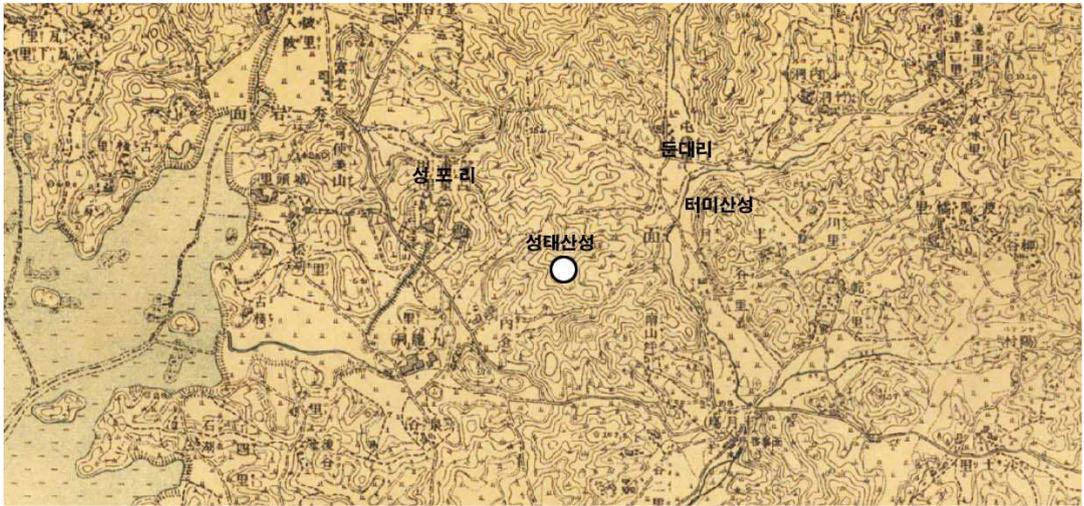
〈그림 2〉 성태산성 발굴(시굴)조사 현황도(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성태산성은 안산의 鎭山인 수리산에서 나봉산으로 이어지는 남쪽 산줄기가 서쪽으로 뺏어 내린 산 정상부에 축조되었다. 성태산성의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와 면하게 되는데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육지화되어 바다가 멀리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근세지도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과거 성태산성 근접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성태산의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의 지명이 鰲浦洞인⁵⁾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태산성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현재의 군포시 둔터 일대는 과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한강 이남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 길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태산성과 터미산성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하여 한강 이남과 수월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한다. 특히 한강 유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군사적, 교통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4) 터미산성은 1999년 발견되었는데, 해발 158m의 산정상부를 둘러싸는 삼국시대의 산봉형 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450m 정도이며, 성벽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로 판단되고 있다. 성 내부에는 집수지, 건물지 등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배기동·이한용·강병학, 앞의 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0).

5) 조선시대의 바닷가 마을로 성곶포가 있었으며 상선들이 왕래했다고 전한다(인터넷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참조).



〈그림 3〉 근세지도 내 성태산성의 위치와 해안선



〈그림 4〉 성태산성과 구 해안선
(안신원 · 이정철 · 류대협 2019)



〈그림 5〉 성태산성과 주변 교통로
(안신원 · 이정철 · 류대협 2019)

이번에 진행된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성태산성 성벽의 구조 및 축조방식을 확인하였다. Tr.1과 Tr.2의 조사를 통해 성태산성의 성벽은 원래의 능선 사면을 비스듬하게 절개하면서 그 바닥은 기반암이 노출되도록 하였는데, 석축으로 외벽을 쌓은 후 그 내부를 돌로 뒤채움한 편축식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벽 상면의 층위 양상을 볼 때, 비스듬하게 절개된 사면부와 뒤채움돌 사이는 점토로 다짐한 것으로 보여진다.

Tr.1에서는 성곽이 지형의 흐름을 따라 회절하는 양상을 보이며, 외벽의 면석은 모두 유실된 상태로 뒤채움 양상만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잔존 높이는 약 4m이며, 폭은 약 5m이다. 한편 성 내부 구간에서 특이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6〉 Tr.1 전경(성 외측→성 내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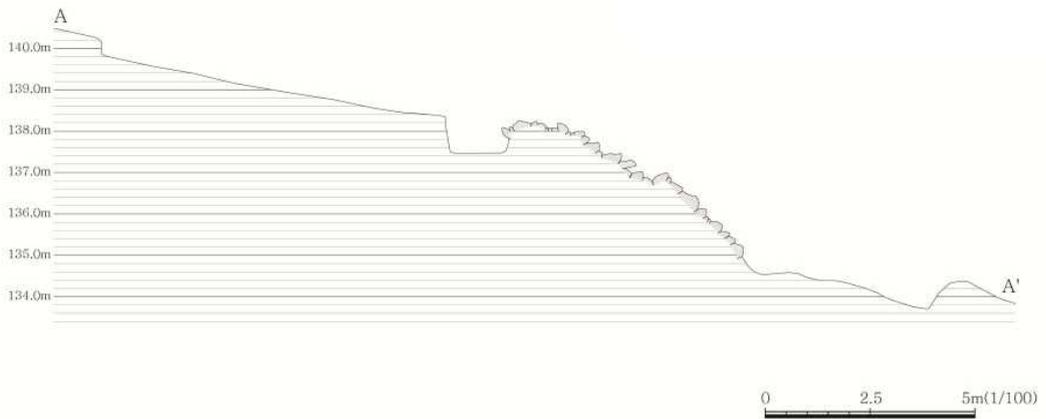
〈그림 7〉 Tr.1 뒤채움 양상(수직)



〈그림 8〉 성벽 상부 퇴적 양상



〈그림 9〉 성 내부 구간(성 내측→성 외측)



〈그림 10〉 Tr.1 단면도(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Tr.2에서는 잔존 높이 약 4.6m, 폭 약 5m의 성벽이 확인되었다. 성곽의 외벽 면석은 기반암 위로 7~8단 가량(약 170cm) 남아 있는데, 면석 앞면은 장방형이고 뒷면은 송곳형으로 치석되었다. 면석의 앞면 크기는 너비 약 40~50cm, 높이 약 20cm이다. 외벽의 기저부에서 3~4단은 '品'자형 수직으로 쌓아졌고, 그 윗단의 4~5단은 사면 퇴적의 압력에 의해 외부로 밀려나 있는 양상이다. 한편 성 내부의 평탄지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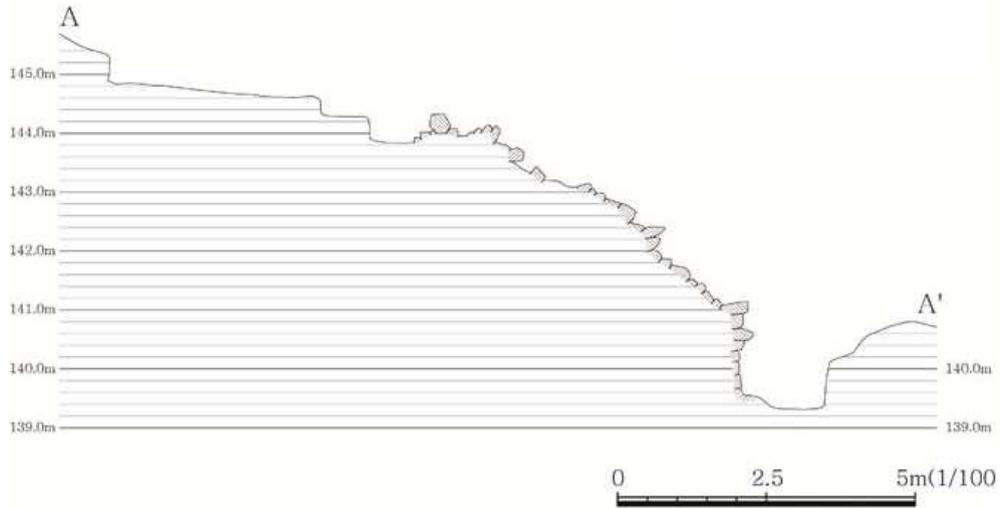
〈그림 11〉 Tr.2 성벽 외벽(성 외측→성 내측)



〈그림 12〉 Tr.2 성곽 외벽 기저부



〈그림 13〉 Tr.2 성벽 상단(성 내측→성 외측)



〈그림 14〉 Tr.2 단면도(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한편 2000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단보축은 초축 성벽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발굴(시굴)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m 이상의 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축성을 하고 그 틈을 잔돌로 채워 넣어가며 성벽에 덧대어 4단 정도, 높이는 120cm 정도로 축조한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기단보축은 급경사 지역이거나 성벽이 붕괴되기 쉬운 지점, 혹은 붕괴지점에 재차 축조되므로, 초축 성벽과 기단보축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면 원래의 성벽을 축조한 후 급한 경사로 인해 성벽의 붕괴 등이 발생하였고, 그 보수 과정에서 기단보축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성태산성은 비교적 소형의 규모임에도 견고하게 축성하고 유지시킨 성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 성태산성 남서벽 기단보축 (배기동·이한용·강병학 2000)

3. 출토 유물

성태산성 발굴(시굴)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토기와 기와편으로 수량이 적은 편이다. 토기는 단각고배편과 단각투창고배 대각부편, 시루 저부편, ‘공(工)’자가 새겨진 대용 경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기와편은 선

문과 승문이 시문된 것과 무문 암키와편이 있다. 유물의 양상은 다량의 유물이 수습된 2000년 지표조사때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당시의 조사 때에도 고배와 호형토기, 병, 파상문이 시문된 토기편과 기와가 수습된 바 있다. 따라서, 수습된 토기와 기와편은 성태산성의 초축시기와 수·개축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16〉 도·토기류(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그림 17〉 단각고배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그림 18〉 대옹 경부편 ‘工(공)’자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그림 19〉 성태산성 출토 기와류(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Ⅲ. 축성 기법과 유물 검토

성태산성에 대한 조사는 발견된 이후 실시된 지표조사와 현황조사 그리고 시굴조사를 통해 성의 규모와 성벽 구조가 일부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수습된 유물이 비록 토기와 기와 뿐이지만, 축성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성벽을 축성한 기법과 유물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성벽과 기단보축

성태산성의 성벽은 Tr.1과 Tr.2를 바탕으로 보면 체성을 편축식으로 쌓았고, 석재와 점토로 뒤채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벽은 Tr.2를 통해 볼 때, 기반암 위에 장방형의 면석을 ‘品’자형의 수직으로 쌓았으며, 면석 사이에 켜기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벽의 높이는 평균 5m인데 최대 6m로 추정되며, 너비도 5m 내외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성태산성의 외벽과 축성상태가 비슷한 성곽으로는 화성 당성 1차성과 서울 양천고성지, 평택 자미산성 등이 있으므로 이들 유적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 성태산성과 소형 신라 산성 비교

명칭 \ 속성	둘레(m)	형식	축조기법	면석 형태	기단보축
성태산성	382	산봉형	편축	방형, (세)장방형	유
당성 1차성	610	산봉형	협축	방형, (세)장방형	유
양천고성지	380	고로봉형	편축	방형, (세)장방형	유
자미산성	582	산봉형	편축	방형, (세)장방형	유

화성 당성 1차성은 둘레 610m로 북벽과 남벽, 서벽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협축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성벽 높이와 너비가 약 5~6m로 추정되었다. 성벽의 축성기법을 보면, 북벽의 경우 풍화암반 층 상면에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여 ‘뿔’자형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면석의 형태는 방형과 장방형, 세장방형 등 다양하고, 정면은 비교적 매끄럽게 다듬었으며, 면석과 면석 사이가 맞붙어 있지만 빈틈에는 켜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북벽의 높이는 약 3m이지만, 뒤채움의 양상으로 보아 최대 5m 이상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벽의 축성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1~3단까지는 면석 형태가 방형과 장방형이지만, 4단에 세장방형 면석이 있고, 5~6단은 다시 장방형 석재로 쌓았다. 7단에는 얇고 긴 세장방형 면석이 그리고 11단 부분은 7단보다 더 작고 얇은 면석을 놓았다. 남벽도 거의 비슷한 축조양상을 보이는데, 북벽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7~8단까지는 켜기돌이 거의 없이 치밀하다.

한편, 북벽과 남벽 외부에는 점토로 기단보축한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기단보축은 풍화암반 상부에 갈색 점토층과 적갈색 점토층이 외벽 3단 높이까지 있으며, 외벽 앞으로 약 2m까지 확인되었다. 그리고 적갈색 점토층 위로는 와적층이 약 50cm 두께로 퇴적되어 있는데, 이 층에서 삼국부터 고려초까지의 기와가 섞여 출토되었다. 특히 북벽의 갈색 점토층에서 채취된 목탄의 분석결과, 6세기 중반~7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연대측정결과가 나와서 주목된다.⁶⁾

다음으로 서울 양천고성지는 둘레 380m의 고로봉식 석축 산성으로 동벽과 서벽, 남벽 그리고 남치와 북치, 건물지 등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⁷⁾ 성벽은 편축식으로 축조되었고, 서벽 구간에서 초축 성벽이 확인되었다. 성벽 축조는 풍화암반층을 정지한 후 기단석을 올려 놓고, 이 석재가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착암기초를 적용하여 턱을 마련해 두었으며, 그 위로 면석을 ‘뿔’자형의 수직으로 쌓았다. 면석의 형태는 방형과 (세)장방형이고, 바른층쌓기로 축조되었다.

6) 배기동·김기룡·이상현, 『당성-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162~167쪽.

7) 조원창 외, 『서울 양천고성지』,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6; 조원창 외, 『서울 양천고성지Ⅱ』,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9.



〈그림 20〉 성태산성 동벽 〈그림 21〉 당성 1차성 북벽⁸⁾ 〈그림 22〉 양천고성지 서벽 〈그림 23〉 자미산성 북벽⁹⁾

평택 자미산성은 내성과 외성 그리고 부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내성은 토축으로 쌓아졌고, 외성이 석축으로 축성되었다. 외성은 평면 장방형이고, 둘레는 582m, 편축식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은 암반층을 계단식으로 3~4단 깎은 후 쌓았는데, 기초부는 점토와 잡석으로 다져 정지한 후 그 위에 상단의 면석보다 두꺼운(세)장방형 또는 방형 석재를 '품'자형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기단석 앞에는 착암기초로 턱을 두어 면석이 밀리지 않도록 했고, 기저부 외부는 기저층을 연장하여 높이 50cm까지 피복하여 외벽을 보호하였다. 면석은 구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방형과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품'자로 쌓은 곳과 세장방형 면석만으로 축조한 곳, 세장방형과 방형의 면석이 혼용된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은 지대석 위로 면석을 5~10cm 정도 들어쌓기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단보축에 사용된 석재는 세장방형과 장방형, 부정형 석재를 사용하여 쌓았으며, 2차례 정도 축조되었다.

다음으로 뒤채움을 보면, 성태산성은 외벽 뒤쪽으로 크고 작은 할석을 가지런히 쌓았고, 할석 사이의 빈틈에 흙이 채워져 있으나 대체로 할석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석 뒤쪽에 점토 다짐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뒤채움을 하면서 동시에 점토 다짐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암반층에서부터 동시에 쌓은 것인지 여부는 향후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다. 양천고성지의 뒤채움은 계단식으로 정지한 후 축조되었다. 즉 외벽의 내면부는 성벽과 직교하는 형태로 장방형의 석재를 1열로 배치한 후, 그 상단부에 할석과 점토를 사용하여 뒤채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하단부는 할석으로 뒤채움 하다가 일정한 높이부터 점토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자미산성의 뒤채움은 1단부터 대형 석재로 수평에 가깝게 약간 기울여 가지런하게 쌓았고, 토축부는 기저암반 3단부터 4단에서 뒤채움 내벽과 붙어 나갔다.

8) 배기동·김기룡·이상현, 앞의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163쪽(사진 144 전제).

9)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293쪽(사진 51 전제).

10) 조원창 외, 2019, 위의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일문화유산연구원, 148쪽.



〈그림 24〉 성태산성 Tr.2 뒤채움 층위



〈그림 25〉 자미산성 북벽의 뒤채움과 기저층¹¹⁾

끝으로 기단보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태산성에서는 기단보축이 확인되었지만, 성벽의 모든 구간 에 걸쳐 축조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밝혀져야 한다. 다만 남서벽에서 조사된 기단보축은 크고 작은 할석으로 4단 내외로 쌓았고, 높이 120cm 정도이다. 기단보축에 사용된 돌은 장방형이거나 부정형이고, 큰 돌은 길 이가 1m인 것도 있으며,¹²⁾ 면석 중에 성돌에 사용되었던 세장방형의 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이 초축 된 이후에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까워서 윗면의 너비가 좁고 아래면으로 내려 올수록 넓어진다.



〈그림 26〉 성태산성 기단보축



〈그림 27〉 당성(1차성) 초축 성벽과 1차 기단보축¹³⁾



〈그림 28〉 양천고성지 남벽 기단보축¹⁴⁾



〈그림 29〉 자미산성 북벽 기단보축¹⁵⁾

당성 1차성의 기단보축은 단면 삼각형의 보축과 부정형 보축이 혼재되어 확인되었다.¹⁶⁾ 3지점의 서벽에

11) 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0, 301쪽(사진 67 전제).

12) 배기동·이한용·강병학, 앞의 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0, 81쪽.

13) 배기동·김기룡·이상현, 『당성-4차 발굴조사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113쪽(사진 74 전제).

14) 조원장 외, 앞의 보고서, 2016, 191쪽(사진 40-㉔).

15) 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0, 331쪽(사진 155 전제).

16) 안성현은 당성에서 석축과 토축 보축이 모두 확인되었는데, 적갈색 사질점토를 단면 삼각형 형태로 다져서 보강하였으며, 붕괴된 성석과 유물들이 다짐층 상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초축성벽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안성현, 「1.

단면 삼각형의 기단보축이 남아 있는데, 성벽 하단 3~4단(높이 약 60~80cm)까지¹⁷⁾ 거칠게 다듬은 할석으로 비스듬하게 얹혀 쌓았다. 양천고성지의 기단보축은 모든 성벽 구간에서 확인되었는데, 성벽의 3단 높이까지 점토와 할석, 기와편을 섞어 보강하였다. 토층의 단면 양상으로 보아 성벽의 기저부부터 수·개축부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덮여 있어서 기단보축이 수·개축된 시기에 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자미산성의 기단보축은 북벽 구간에서 확인되었는데, 1차와 2차로 구분되었다. 1차 기단보축은 북벽 기단부와 같은 크기의 할석재로 기저부 층 위에 두고 면석보다 작은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석재로 들여쌓기와 뒷심을 기울여 쌓았다. 뒤채움은 하단부에 상면이 편평한 할석재를 기단석 뒤로 2단 정도 배치하고, 그 위로는 작은 석재와 깨진 석재로 채웠다. 이 기단보축의 단면은 삼각형이며, 기울기는 50° 정도이다.¹⁹⁾

이상으로 성태산성의 성벽과 한강 유역에 분포한 성곽들의 성벽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성태산성은 둘레가 382m로 규모면에서 당성 1차성과 자미산성보다 작고, 양천고성지와 거의 동일하다. 성태산성의 축성기법 특징은 성벽이 편축식으로 쌓아졌다는 점에서 양천고성지와 자미산성이 동일하고, 당성 1차성 초축 성벽은 협축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기저부는 성태산성이 암반층 위에 ‘품’자형의 수직쌓기로 하였는데, 양천고성지와 자미산성, 당성 1차성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양천고성지와 자미산성의 기저부는 착암기초를 적용하여 기단석이 밀려나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성태산성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성태산성의 면석 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고, 세장방형 면석도 관찰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당성 1차성에서는 방형과 장방형 면석 외에도 얇은 세장방형의 면석을 반복적으로 쌓은 모습이 확인되어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상하의 면석들과 맞물려 수직으로 하중의 분산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⁰⁾

뒤채움은 성태산성의 경우 거친 할석으로 열을 맞춰 쌓았고, 빈틈에는 흙이 채워져 있는데, 채움석 뒤에 곧바로 점토 다짐층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할석과 점토를 동시에 쌓았다. 이러한 기법은 양천고성지의 뒤채움 양상과 비슷하지만 현재로선 단정지을 수 없다.

기단보축은 당성 1차성과 양천고성지, 자미산성의 양상과 성태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다만 성태산성의 기단보축이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남서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성벽 구간에서 새로운 기단보축이 확인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용된 돌이 크고 거칠게 다듬어진 것이 섞여 있고, 세장방형의 면석도 사용된 것으로 볼 때, 남서벽 구간의 기단보축이 외벽을 수·개축할 때 쌓여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미산성의 기단보축이 1·2차로 구분되는데, 1차 기단보축이 초축 성벽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과 양상이 비슷한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성곽유산 개설, 『한국의 성곽유산 I』, 2021, 83~84쪽.

17) 배기동·김기룡·이상현, 앞의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115쪽.

18) 조원창 외, 앞의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6, 158~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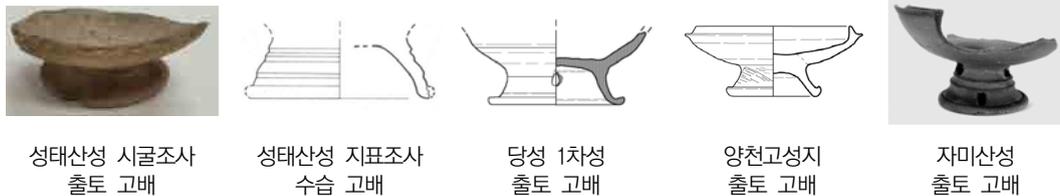
19) 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0, 242쪽.

20) 이천 설봉산성의 1차 성벽의 경우 장방형 면석을 2~3단 쌓은 후 그 위에 얇은 판석형 석재 2단을 놓거나 정방형 석재 1단을 놓는 수법이 교대로 반복되어 장방형 석재 2단과 판석형 석재 2단이 한 세트(set)를 이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박경식·서영일·방유리,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이천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469쪽).

2. 출토유물

성태산성에서는 토기와 기와, 철축 등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토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기와, 철축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성태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유개와 무개 고배가 있고, 뚜껑, 시루, 대옹, 우각형 파수, 병편 등이 수습되었다. 고배의 경우 회청색을 띠는 경질과 회백색을 띠는 연질이 있으며, 굽이 비교적 낮은 단각이다. 그리고 대각에 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대각의 단면이 ‘八’자 형으로 넓게 벌어진 것과 사다리꼴 형태로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것이 있다. 대각의 말단부는 둥글게 말아 올라간 것과 밖으로 한번 접힌 것이 있다.



〈그림 30〉 고배 비교

양천고성지 출토 유개 고배의 경우 대각이 낮고 ‘八’자형으로 벌어졌으며, 투공이 있다. 배신은 원저형이고, 뚜껑받이 턱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 돌대형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다.²¹⁾ 자미성에서는 이단투창 유개고배를 비롯하여 삼각집선문+원점문, 수적문, 원문, 화문 등이 시문된 뚜껑, 완, 대부완, 대부장경호, 고리형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이단투창고배는 회청색 경질로 집수시설과 성 내부트렌치에서 출토되었는데, 뚜껑받이 턱은 짧게 밖으로 뺀어 올라가 구연과의 사이에 둥근 홈을 만들었다. 굽은 밖으로 벌어진 나팔형이고, 이단을 이루는데, 2개의 돌대를 마련하여 경계를 두었다. 각 단에는 방형 투창 3개씩이 뚫려 있고, 위와 아래 투창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었다. 굽의 접지면은 밖으로 둥글게 말아서 마무리되었다. 당성 1차성의 1지점 북벽 하단부에서도 고배가 출토되었는데, 대각 높이가 2.5cm로 낮고, ‘八’자형으로 벌어져 있으며, 말단부가 둥글게 말아서 처리되었다. 대각에는 타원형의 투공이 밖에서 안쪽으로 뚫려 있다.

성태산성과 세 개 산성 출토 고배 및 뚜껑을 비교해 보면, 자미산성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와 비슷한 기형의 고배가 파주 성동리 고분군과 하남 이성산성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고배의 특징 중 하나는 투창에서 투공으로 점차 작아지거나 소멸하는 경향으로 보기 때문에 투공의 유무가 중요하고, 대각이 배신보다 높고 낮은 비율에 따라 제작시기를 판단하기도 한다.²²⁾ 뚜껑도 삼각집선문+원점문이 시문된 경우가 용인 할미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성의 축성 및 사용시기가 6세기 중~7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²³⁾ 따라서 성태

21) 조원창 외, 앞의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6, 171쪽.

22) 강진주, 「신라의 용인지역 정착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신라사학보』 36, 2016, 70쪽.

23) 현남주, 「용인 할미산성 발굴성과와 개요」,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2015; 강진주, 「할미산성 출

산성에서 출토된 고배 특징은 대각이 낮고, 투공도 작아진 단계여서 자미산성 출토품보다 늦고, 당성 1차성 및 양천고성지 출토품과 비슷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성태산성에서는 신문과 승문, 무문 평기와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승문과 신문이 시문된 기와는 밝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로 승문의 경우 등면에 종방향으로 승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어 있다. 배면의 포흔은 조밀하고, 모골흔이 없다. 신문도 종선문이 얇게 시문되어 있고, 두 점 모두 두께가 1~2cm사이로 얇은 편이다. 그리고 철축은 사두형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형태의 화살촉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비슷한 시기의 성곽에서도 출토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성태산성에서 출토된 고배를 통해서 초축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당성 1차성과 양천고성지를 감안한다면 6세기 말~7세기 전반으로 편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문과 승문 기와는 원통형외통으로 제작되었고, 소성 온도가 낮으며, 두께도 얇다. 수습된 기와편의 크기가 작아서 타날판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주변 지역 성곽 및 독산동 유적 출토품과 비교해 볼 때, 7세기 전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성태산성의 성격

1. 축성 배경

성태산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봉형의 규모가 작은 성이고, 출토된 유물로 보아 6세기 말~7세기 전반경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삼국이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때로 여기에서는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 성태산성의 축성 배경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신라는 백제가 551년 회복한 漢城 일대를 553년 점령한 뒤 新州를 설치하였고,²⁴⁾ 555년 진흥왕이 北漢山에 순행하였으며,²⁵⁾ 557년에는 신주를 北漢山州로 옮겼다.²⁶⁾ 그리고 564년과 567년 北齊와 陳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568년에 북한산주를 南川州로 옮겼다.²⁷⁾ 신라가 백제로부터 한성 일대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한 목적은 독자적인 대중국 외교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과 서해를 통한 백제와 고구려 침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⁸⁾

신라는 6세기 중반 이전까지 대중국 외교를 고구려나 백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진흥왕이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점령지역을 공격한 이후 갑자기 한성, 즉 한강 유역을 공격한 이유는 서해를 통한 독자적인 대중국 외교를 시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

토 유물에 대한 검토],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2015 참조.

2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條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滄武力爲軍主.”

25)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6年條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26)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8年條 “……廢新州 置北漢山州.”

2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9年條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28) 皇甫慶, 「新州 位置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53, 1999, 220~223쪽.

라는 서해의 항구가 필요했는데, 인천과 화성에 있던 항구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천보다는 당항성을 보다 선호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임진강 하구와 맞닿아 있는 한강 하구와 인천은 고구려 수군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평택 이남지역은 충남 당진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백제 수군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당항성을 중심으로 대중국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라는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로 삼국 통일을 이룰 때까지 한반도 영유권을 고구려나 백제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55년에 이루어진 진흥왕의 순행 이후 적극적인 치소 설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주 설치 이후에 554년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의 승리는³⁰⁾ 진흥왕에게 영역 확장과 대중국 외교의 기회를 갖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진흥왕은 곧바로 북한산 순행을 단행하였고, 신주를 한강 이북지역인 북한산주로 果敢하게 옮김으로써 고구려를 자극할만한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551년 突厥의 침략과³¹⁾ 干朱理의 모반으로³²⁾ 신라의 치소 설치 및 이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한 신라는 558년 王京의 귀족 자제와 6부의 富豪들을 국원으로 이주시켰다.³³⁾ 신라의 이러한 조치는 한강 유역을 경영함에 있어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564년부터 北齊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으며,³⁴⁾ 565년에는 北齊의 武成皇帝로부터 官爵을 받게 되었다. 같은해 陳에서는 사신과 승려를 보내왔으며,³⁵⁾ 그 이후로도 두 나라에 사신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이렇게 대중국 외교가 속도를 내고 활발해지자 신라로서는 주치소를 옮길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를 위해 북한산주를 남천주로 옮김으로써 외교의 거점지역을 왕경에서 국원과 남천주를 거쳐 당항성으로 直結되도록 조치를 단행하였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도 北齊 및 陳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특히 550년 9월에는 北齊가 양원왕을 책봉하였고,³⁶⁾ 562년에 陳에서도 평원왕을 ‘寧東將軍’에 봉하였다.³⁷⁾ 또한 백제도 두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책봉을

29)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 2015, 148쪽.

3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年條.

31)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年條.

32)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13年條.

3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9年條 “春二月 徒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3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5年條 “遣使北齊朝貢.”

564년에 고구려와 말갈도 北齊에 사신을 보냈는데, 『北齊書』에 의하면 세 나라가 나란히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北齊書』 卷7, 帝紀7 武成 3年條 “是歲 高麗 靺鞨 新羅並遣使朝貢”). 따라서 北齊 방문이 고구려와 신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라의 외교적 정보력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듬해에 진흥왕이 책봉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北齊에서 진흥왕 책봉을 고구려와 동등하게 한 이유는 고구려가 北周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신라와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방향숙,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계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60쪽).

한편, 윤성호는 신라가 北齊에 사신을 파견하는 시점에서야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에 대한 지배가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73쪽).

3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年條 “春二月 北齊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陳遣使劉思與僧明觀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36)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六年條 “秋九月 北齊封王爲使持節侍中驃騎大將軍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37)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4年條 “春二月 陳文帝詔授王寧東將軍.”

받았다.³⁸⁾ 특히 백제가 北齊로 사신을 보낸 일은 南朝 위주의 제한된 외교에서 향후 남북조 등거리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려는 의지의 첫 발로라 볼 수 있다.³⁹⁾ 또한 신라가 첫 외교의 대상을 北齊로 삼은 것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있다고 여겨진다.⁴⁰⁾ 이렇듯 삼국은 급변하는 중국 정세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했던 대중국 외교가 564년부터 신라도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麗濟는 신라를 견제하게 되었고, 신라로서는 왕경에서 서해의 항구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육상 교통로 및 制海權 확보가 절실했다. 육상으로는 왕경에서 國原인 충주를 거쳐 남천주를 거점삼아 한강 유역과 화성 당성으로 향하기 편리한 남천주로 치소를 옮기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⁴¹⁾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것은 고구려였다. 603년 고구려는 고승 장군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진평왕은 한강 이북지역의 방어체계가 고구려에 의해 단 한번에 무너짐에 따라 親征을 하여 북한산성을 사수하였다.⁴²⁾ 이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남천주를 다시 북한산주로 옮겼으나,⁴³⁾ 고구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가며 공격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한강 이북지역과 임진강·한탄강 사이에 성곽의 방어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라는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대중국 외교를 시도하기 위해 경기·남양만 일대의 제해권 확보 차원에서 안성의 죽주산성과 평택의 자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화성 당성 등을 신속하게 축성하였고,⁴⁴⁾ 그 직후에 안산 일대에도 규모가 작은 산성을 쌓았다. 특히 7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북변지역을 공격해 오며 따라 한강 이북~임진·한탄강 유역 그리고 서해안에 대한 축성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역할 검토

안산과 시흥 일대의 성곽 분포를 보면, 성태산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터미산성이 있고, 북서쪽에 君子山城, 서쪽과 서남쪽에 木內洞城과 城谷洞城이 위치해 있다. 이 중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된 터미산성과 군자산성, 성곡동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성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38) 백제는 562년 陳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567년 陳에 사신을 보냈으며, 570년과 571년에 北齊에서 '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과 '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로 책봉하였다.

39)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247쪽.

40) 장창은,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2017, 113쪽.

41) 주치소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인적 및 물적 이동량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교통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남천주의 치소는 설봉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곳과 가까운 중리동에서 대규모의 신라 고분군이 발굴되었다.

4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條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4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6年條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44) 서영일은 신라의 한강 방어선과 관련하여 이천-하남-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중요하고, 남쪽 백제와의 접경으로는 이천-죽산-안성-평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천-용인-화성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이천지역에서 화성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였다(서영일, 「용인의 고·중세 교통로와 구성 지역」, 『문화사학』 45, 2016, 61쪽).

〈표 3〉 안산지역 성곽 현황

	해발(m)	둘레(m)	평면형태	형식	축조재료	주요 시설
성태산성	160.7	382	장타원형	산봉형	석축	
성곡동성	48	800	장타원형	산봉형	석축	문지, 건물지
목내동성	40~93	4,000	삼각형	사모봉형	토축	
군자산성	198.4	400			토석혼축	
터미산성	159	450	반월형	산봉형	석축	치성, 문지, 외황, 집수시설

먼저, 성태산성의 동쪽 맞은편에 위치한 터미산성은 터미산(해발 159m)의 정상부를 둘러싼 산봉형의 석축성이다. 이 성은 성태산성과 동-서로 약 1.2km의 간격을 두고 있고, 두 산성 사이로 반월천이 흐르고 있다. 성 둘레는 약 450m이고, 성벽은 남쪽 구간에서 확인되었는데, 높이 1.1m로 막돌 허튼층쌓기로 단과 열이 불규칙하게 축조되었다. 그리고 남벽과 동벽이 회절하는 지점에 치성이 있고, 치성벽 바깥쪽에 외황과 2차 성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⁵⁾

다음으로 군자산성은 시흥시 군자동의 군자봉(해발 198.4m)에 토석혼축으로 쌓여진 산봉형 성이다. 둘레는 약 400m이고,⁴⁶⁾ 잔존 성벽의 높이는 1.9m이며, 문지와 추정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 및 기와편이 수습되었는데,⁴⁷⁾ 산 정상부의 북쪽과 서쪽 지역에는 주로 회색 외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산포되어 있다.⁴⁸⁾

성곡동성은 안산시 성곡동의 해봉산(해발 48m) 정상부에 축성된 산봉형의 석축산성이다. 현재는 도로 때문에 산성이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체 추정 둘레가 약 800m이고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남쪽 구간의 둘레는 350m이다. 이 성의 서쪽 아래로는 신길천이 북쪽에서 흘러와 시화호로 유입되고, 산 정상부에서 안산 시가지와 시화호 일대가 조망이 잘 된다. 이 성은 둘레가 비교적 큰 편이고, 추정 동문지와 건물지에서 삼국시대 토기와 기와편이 채집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獐項口縣의 치소지로 남북국시대에는 獐口郡이었다.⁴⁹⁾

목내동성은 목내동과 초지동 사이의 산능선들을 연결하여 축성된 둘레 4km의 대형 토성이다. 『輿地圖書』와 『海東地圖』 등에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78년 성의 일부가 발굴되어 성벽 높이 2~3m, 너비는 상부 2m, 하부 5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편과 남북국시대 인화문토기편 그리고 고려~조선시대 어골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⁵⁰⁾

45)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2001, 184~185쪽.

46) 군자산성의 둘레는 보고서마다 300m 또는 400m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것으로 표기하였다.

47)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上, 1989, 184쪽; 경기도박물관, 위의 보고서, 2001, 35쪽.

48) 배기동·이한용·강병학, 앞의 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0, 32쪽.

49) 『三國史記』 卷35, 雜志4 獐口郡條 “本高句麗獐項口縣 景德王改名 今安山縣.”

50) 정영호, 「목내리산성 발굴조사보고」,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단, 1978; 정영호, 「목내리 산성 발굴조사보고」, 『한국고고학보』 7, 1979; 배기동·이한용·강병학, 위의 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이상으로 성태산성 주위에 위치한 네 개 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목내동성은 규모가 크고 고려~조선시대 유물이 수습된 점으로 보아 남북국시대 이후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¹⁾ 이에 나머지 세 개 산성을 중심으로 성태산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도 5〉 경기 서해안 성곽 분포도(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2000, 33~34쪽.

51) 기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된 점으로 볼 때, 목내동성이 성곡동성의 배후성이었다가 나팔여초에 개축되면서 성의 규모가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성태산성과 세 개 산성에서는 성벽이 확인되었고 둘레도 다양하며, 삼국시대 토기와 남북국~고려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들 산성들은 경기만을 통해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분포해 있으며, 화성 당성을 통해 한강 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지이기도 하다. 즉 안산 앞바다를 통해賊이 상륙할 경우 시흥과 군포, 광명지역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화성 방면과도 연결된다. 또한 성태산성을 지나 안산천과 목감천을 따라 북진하면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서 안양천과 합류되어 한강에 도착할 수 있고, 터미산성 쪽에서 서울 호암산성 방향으로 북진하면 안양천변에 입지한 서울 독산동 유적을⁵²⁾ 거쳐 가게 된다. 그리고 안양천을 따라 계속 북상하면 역시 한강 본류에 도착하며, 서쪽의 궁산에 양천 고성지가 입지하고, 한강 건너편에 행주산성이 자리해 있다. 따라서 성태산성과 터미산성은 안산 해안가에서 한강 본류의 河口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태산성 일대의 관방체계를 정리해 보면, 넓게 보면 해안과 배후 구릉, 산에 석성과 토성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⁵³⁾ 경기만을 통해 적이 상륙할 경우 해안과 가장 가까운 성곡동성을 거쳐야 한다. 성곡동성은 입지와 규모로 보아 강안산성에 해당되는데,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전진방어선으로서의 군사적인 기능과 함께 안산일대 중심지로서 주변지역을 통제하던 주요 거점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⁵⁴⁾ 이 성곡동성을 지나면⁵⁵⁾ 시흥 군자동과 능곡동 방향 그리고 성태산성이 있는 일동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데, 군자동과 능곡동,⁵⁶⁾ 장현동⁵⁷⁾ 일원에서는 신라 고분이 발굴되어 주목된다. 특히 장현 유적 중 군자동 2지점 5호 석실묘와 장현동 6지점 1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병 및 대부병, 유개고배 등의 기형과 문양으로 보아 6세기 중~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⁸⁾ 따라서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직후에 시흥과 안산지역으로도 일찍부터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유적은 군자산성과 가까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축성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군자산성도 해안과 가까운 군자봉에 축성된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적을 성곡동성에서 1차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내륙으로 진출하는 적을 2차로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성으로부터 내륙 쪽으로 이동하여 온다면 성태산성까지 특별한 제지 없이 곧바로 도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목감천을 따라 광명으로 진입하여 한강 유역까지 갈 수 있다. 성태산성은 안산 해안과 당성에서 북진해 오는 교통로를 통제하여 한강 유역과 수원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곡동성은 시화호 해안에 입지한 전진방어성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장항구현의 치소지로 지목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전시에는 상륙하는 적을 방어하는 1차

5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독산동 유적』, 2016.

53) 인천과 평택, 화성 서부지역 등 큰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백종오의 연구가 있다(백종오, 「경기남부지역의 백제산성 I」, 『경기도박물관연보』 2, 1998: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문화사학』 27, 2007).

54) 경기도박물관, 앞의 보고서, 2001, 99쪽.

55) 목내동성이 성곡동성의 배후성으로 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질 기대해 본다.

56) 최진호, 『시흥 군자동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김성태 외, 『시흥 능곡동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57) 이동준 외, 『시흥 장현 유적 I~IV』, 한국토지주택공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8.

58) 이동준 외, 위의 보고서, 2018, 374~379쪽.

방어선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경기만의 대부도와 영흥도, 덕적도 등의 섬 일부도 관할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덕적도는 신라에게 있어서 서해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로부터 반드시 사수해야 했던 주요 섬 중에 하나였다.⁵⁹⁾ 근자산성은 성곡동성의 북동쪽 배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안 감시는 물론 시흥방면의 교통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성태산성은 해안과 육상 교통로를 동시에 감제하고 방어하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 산성도 시화호 해안선과 가깝기 때문에 근자산성과 함께 2차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광명과 서울, 수원 방면으로 교통하는 육상 교통로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동쪽 옆에 터미산성이 있지만, 지표조사된 성벽의 축조상태가 좋지 않고 수습된 유물도 없어서 축성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⁶⁰⁾

결론적으로 성태산성은 안산에 축성된 신라 산성으로 성곡동성, 근자산성과 함께 운영되면서 해안 방어와 내륙으로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당성에서 호암산성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망에 위치하여 점차 활용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성태산성은 2000년에 처음 발견된 소규모의 산봉형 산성으로 삼국시대 안산 일대 관방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발굴(시굴)조사를 통해서 성벽의 축조상태를 알 수 있었고, 토기와 기와도 출토되어 축성시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성태산성의 축성시기는 6세기 말~7세기 전반으로 판단되는데, 돌레와 축조기법은 양천고성지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자미산성에 비해 다소 늦게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미산성에서는 이단투창고배와 삼각집신문+원점문이 시문된 뚜껑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성태산성 출토 단각고배와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시간차가 있으며, 당성 1차성과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태산성의 축성 목적은 553년 신주 설치 이후 서해안을 통한 입출항과 육상 교통로를 감제 및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과 화성 사이의 안산 해안은 최전선을 지원하고, 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내륙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라는 564년부터 진행된 대중국 외교로 인해 국제 항구와 당성 1차성을 축성하면서 그 주위에 방위성을 쌓아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강 분류역과 인천, 김포, 안산 지역에도 소규모의 산성을 축성하여 한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갔다. 특

59) 德積島는 ‘큰물섬’이라고 하여 ‘德勿島’, ‘得物島’라도 불리며, 660년 唐의 蘇定方이 이 섬에 주둔하면서 국사봉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덕적도 동남쪽에 위치한 소야도 이름도 소정방의 주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소야리 대촌에서 기와 등의 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김광현, 『덕적도사』, 덕적도사편찬위원회, 198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2002).

60) 다만, 터미산성은 성태산성과 인접해 있고, 규모면에서 소형급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말기부터 남북국시대 초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히 기존의 대중국 외교 질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해 왔던 반면, 6세기 중~후반 사이에는 신라도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개시하면서 서해의 제해권 확보는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그러한 차원에서 557년 신주에서 옮겼던 북한산주를 568년 남천주로 옮겨 당항성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안정화 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활동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이러한 신라의 대중국 외교 행보를 坐視하지 않았다. 즉 백제가 577년 신라의 서면을 공격한 일과 고구려가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관방 체계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신라는 한강 유역과 경기 남부 및 남양만 일대에 많은 성곽을 축성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특히 성태산성 일대가 당성과 호암산성을 잇는 간선도로의 중간 지점에 해당됨으로 성태산성의 축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삼국 통일기는 물론 8~9세기까지도 운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성태산성은 신라의 대중국 외교활동과 관련되어 축성되었고, 안산 해안과 광명, 수원 일원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감제 및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라는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기만 일대 섬의 점령은 물론 해안과 인접한 내륙에도 중소규모의 성곽을 축성하여 경기·남양만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안산 해안과 육로를 방어하는 관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태산성을 비롯한 성곡동성과 군자산성 등을 거의 동시에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北齊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독산동 유적』, 2016.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2001.

김광현, 『덕적도사』, 덕적도사편찬위원회, 1985.

김성태 외, 『시흥 능곡동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박경식·서영일·방유리,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1.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평택시·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배기동·김기룡·이상현, 『唐城-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배기동·김기룡·이상현, 『당성-4차 발굴조사 보고서-』,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배기동·이한용·강병학, 『안산 성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안산문화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0.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안산 성태산성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안신원·이정철·류대협, 『성태산성-현황조사 보고서-』, 안산시·한양대학교 박물관, 2019.

이동준 외, 『시흥 장현 유적Ⅰ~Ⅳ』, 한국토지주택공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2002.

정영호, 「목내리산성발굴조사보고」,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단, 1978.

조원창 외, 『서울 양친고성지』,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6.

조원창 외, 『서울 양친고성지Ⅱ』, 서울특별시 강서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최진호, 『시흥 군자동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강진주, 「할미산성 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2015.

강진주, 「신라의 용인지역 정착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신라사학보』 36, 2016.

방향숙,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2005.

백종오, 「경기남부지역의 백제산성Ⅰ」, 『경기도박물관연보』 2, 1998.

백종오,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문화사학』 27, 2007.

서영일, 「용인의 고·중세 교통로와 구성 지역」, 『문화사학』 45, 2016.

안성현, 「Ⅰ.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성곽유산 개설」, 『한국의 성곽유산Ⅰ』, 2021.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 장창은,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2017.
- 정영호, 「목내리 산성 발굴조사보고」, 『한국고고학보』 7, 1979.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
- 황보경, 「신주 위치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53, 1999.
-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2015.
- 현남주, 「용인 할미산성 발굴성과와 개요」,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2015.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2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Excavation Result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Seongtae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Ansan

Lee, Jungchul* · Hwangbo, Kyung**

Seongtaesanseong Mountain Fortress(城台山城) is a small mountain fortress first discovered in 2000 and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ing the Ansan area's administrative system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excavation conducted in 2021, it was possible to know the state of construction of a uniaxial stone wall, and earthenware and roof tiles were also excavated, so that the time of construction could be identified.

The construction period of Seongtaesanseong Mountain Fortress is believed to be in the late 6th to early 7th century. The purpose of the fortification is judged to be to monitor and control the West Sea after Silla's intallation of Sinju(新州) in 553, and the traffic route that connects Ansan's coast to Gwangmyeong and Suwon. In particular, Silla(新羅)'s diplomatic moves for China during this period put a burden on Goguryeo(高句麗) and Baekje(百濟), and surveillance and conflicts would have occurred in the Gyeonggi Bay(京畿灣) area to seize the maritime power in the West Sea. In response, Silla built a middle and small-scale fortress in the inland adjacent to the coast and concentrated its efforts on defending the Gyeonggi Bay area. In other words, Seongtaesanseong Fortress, Seonggokdong Fortress(城谷洞城), and Gunjasanseong Mountain Fortress(君子山城) were built.

[Keywords] Ansan, Silla, Seongtaesanseong Mountain Fortress, West Sea, Maritime Power

* First Author,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Museum

** Corresponding Author, Chief Curator, Sejong University Museum

